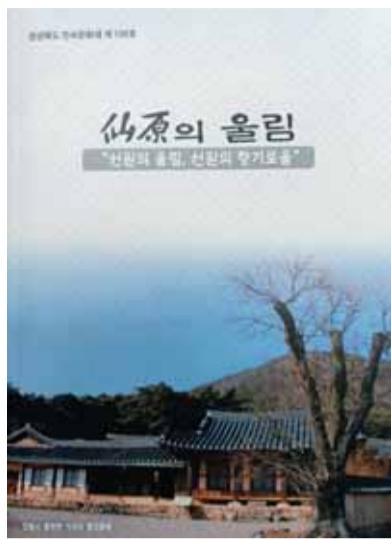


# 복야공파 참의공 종중(안동 가일마을) “선원의 울림” 발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병곡종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38호)

안동권씨 복야공파 참의공 종중(병곡종가 종손 권종만)에서 지난 6월 “선원仙原의 울림”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가일 마을 서쪽으로 이전 이 확정됨에 따라 복야공파 참의공 종중에서는 600여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세거한 유서 깊은 고향과 선조 분묘에 대한 보존 문제를 두고 권종만(權鍾萬) 종손을 비롯한 많은 후손들이 그동안 대책을 세우고 관계 기관에 의견서, 건의서, 애원서(哀願書), 헤안을 기다리는 진언문(進言文), 선원마을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역사공원 조성과 문화유적 보전” 요청 사항,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민원회신 문서와 대구지방법원 화해 권고 결정문 사본도 역사의 증거로 남겨 두었다. 특히 이장 시에 발굴된 유물 등을 한국국학진흥원에 의뢰하여 원형의 모습으로 보존하는 일련의 과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입향조 참의공 권항(權恒)에서부터 참판공 권이(權彊), 참찬공 권주(權柱), 봉사공 권질(權質), 부제학공 권전(權顥) 등의 묘갈명도 수록했다. 봉사공의 사위인 데계 이황은 장인의 묘갈명을 짓고, 같암 이현일은 참찬공 권주의 묘갈명을 지었다. 여기에 후손들도 선조를 흡모하는 마음으로 묘갈명 짓는 일에 참여했는데 권대봉 인천재능대 총장은 부제학공 권전의 묘갈명을 지으려고 할 즈음 어느 날 꿈속에 사대관모를 쓰고 선조께서 훌연히 나타났다고 한다. 권갑현 편집위원장은 권광의 묘갈명을 지었다. 진주목사를 지낸 권광(權礪)의 묘 이장 시에 대거 밀려온 퇴계 이황, 입암 류중영, 학봉 김성일 등의 만장 17점도 함께 수록해 두었다. 또한 부제학공 권전이 표은 선생과 한훤당 김광필 선생의 문묘종사를 위해 상소한 상소문도 실려 있다. 그 뒤에 독립운동가 권준희(權準熙, 1849~1936) 선생의 독립운동 내용과 유공자로 지정된 내역과 가일마을에 대한 후손들의 추억과 할머니를 회상하는 글, 처음 빛나기 이어도 없이 많이 예배해 주신 시할아버지께 30여 년 동안 마음에 두었던 마음으로 쓴 편지 등등 가일마을 후손들의 글도 함께 실려 있다.

권종만 종손은 발간사에서 “우리 후손들은 선조님에 대한 신념이 굳어지고 남기신 지혜에 더욱 감동되어 선원의 울림, 선원의 향기로움을 새롭고자” “선조와 후손을 연결하여 한 권의 책으로 영구히 보존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들여 밟았습니다”고 밝혔다. 후손 글 중 “나의 자부심 내 고향 가일”을 소개한다.

편집국장 권행완

## 나의 자부심 내 고향 가일

-참의공의 19세손 순경純甲

고향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조상 이란 뿌리와 태어난 고향은 반드시 가지게 된다. 나는 참 감사하게도 가일에서 참의공 선조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나의 본적(등록기준지)은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26번지이다. 이곳은 수곡(樹谷) 휘(諱) 보(補), 1709~1778) 선조의 5세손인 우암(友巖) 휘(諱) 준희(準熙, 1849~1936) 고조고의 넷째 자제인 증조고 휘(諱) 동규(東奎, 1884~1965)께서 혼인 후 살림을 나면서 자리 잡은 곳이다. 조고는 휘(諱) 오타(五卓, 1905~1943)이며, 나는 선고 휘(諱) 경련(景鍊, 1933~2017)의 맏이로 1954년 이곳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은 마을의 위쪽 동편의 앞산재 옆에 위치

고향을 좇았던 후에는 안동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객지에서는 사람들을 만나 첫인사를 할 때 자연스레 서로 고향을 묻게 된다. 그럴 때 “안동입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의 “안동권씨 진짜 양반이시군요”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권씨 성을 가지고 안동에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양반 동네라고 불리는 안동에서 그것도 가일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 선택받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입향조이신 참의공께서 대과(문과)에 급제하셨으며, 이어서 둘째 자제이신 정랑공 휘(建), 손자이신 화산공 휘(柱), 증손이신 부제학공 휘(真) 까지, 연속해서 4대에 걸쳐 당시 최고의 엘리트를 뽑는 대과에 급제함으로써 명문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당시 명문가들과의 교류를 보면 알 수 있다. 안동에서도 알짜 양반 소리를 듣는 문중들이 있다. 영천이씨 농암 이현보(1467~1555), 진성 이씨 퇴계 이황(1501~1570),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1538~1593), 풍산류씨 서애 류성룡(1542~1607), 재령이씨 갈암 이현일(1627~1704) 등과 같은 훌륭한 조상을 모시는 문중들이 그중의 하나이다.

지난 2017년 화산(花山) 휘(諱) 주(柱, 1547~1505)

## 한국만화박물관, 기획전시 ‘만화, #시대를 담다’ 개최

한국만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 11월 24일까지 권영섭(종보 만화 회화) 원로만화가협회 회장의 작품 등과 박물관 소장 만화 유물을 중심으로 한국 만화의 역사를 살펴보는 기획전시 〈만화, #시대를 담다〉를 개최한다.

〈만화, #시대를 담다〉 전시는 만화 작품이 담고 있는 각 시대 속 삶의 이야기를 ‘폐허 속 희망’, ‘히어로’, ‘드라마’, ‘청춘’, ‘투혼’, ‘판타지’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제1기획전시실은 ‘희망’, ‘히어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동의 역사와 시대정신을 담고 있

는 만화 작품들을 전시한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해진 삶 속에서 슬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모습을 그린 만화, 아이들의 동심과 학창시절의 즐거움이 가득한 만화 등을 한데 모았다. 당대의 사회상을 작품에 반영하여 해학과 풍자, 비판의 메시지를 담아 다양한 장르로 풀어낸 만화의 사회적인 기능에 집중한다.

제2기획전시실은 ‘드라마’, ‘청춘’, ‘투혼’, ‘판타지’를 주제로 산업화 시대의 삶의 애환과 드라마를 담은 만화들을 모아 선보인다. 지난해도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족 이야기, 젊은 청춘의 풍속도, 비극의



권영섭 작가의 대표 캐릭터 ‘봉선이’(권영섭작)

삶을 투혼으로 이겨내는 강인한 청년 등 삶의 다양한 모습을 만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만나본다.

## 인문학 이야기(1)

권용만 교수(심리학, 철학박사, 38세, 부정공파)



###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오늘, 여기에 나 자신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보고, 그에 대한 관심(關心)을 가지고, 그 관심이 나아가 사고의 능력으로 생각하여 깊은 관찰(觀察)을 통하여 객관적인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도출의 결과를 선한 방향으로 운용(Manage)하여 복잡다단한 현실세계 안에서 나 자신과 가족, 타인, 집단, 국가와 보다 합리적인 관계(關係)를 형성하여, 현재의 우울(憂鬱)하고 막힌 시대(코로나블루 시대)에 참된 자아(自我)를 발견하여 ‘실천적 철학’(實踐的哲學)을 사고함으로써 ‘지행일치’(知行一致)의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데 그 목표를 둔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학문(철학과 심리학을 포함하여)을 배움에 있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서 배움에 임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여 긴 시간 동안에 익한 학문들 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진정한 철학(객관적이고 보편화된 사고)이 없이 단순히 삶을 영위(營爲)하는 수단으로 남아 있다면, 또한 우리들 인생의 참다운 철학과 심리 속에 바르게 용해(溶解)되지 못한 학문은 자신을 이기적(利己的)이고 편협(偏狹)하기 만들뿐이다.

배움이 자신의 삶의 참다운 길잡이(Guidance)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학(學)의 지식들의 집합체로 남는다면, 이는 우리네 삶에 있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피상적인 요령과 논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오히려 의하지 않음만 못하리라.

우리는 자신의 소중한 영혼(Soul. Mind)이 단지 어느 한 분야, 즉 학문과 종교 등에 해박한 지식(Knowledge)과 이론(Theory)의 저장소(Warehouse)가 아닌, 지혜(知慧. Wisdom) : 기독교에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존재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불교에서는 Bodhisattva. 보살. 菩薩 즉 깨달은 자)의 우물터가 되어서 맑고도 시원한 생명수를 그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뭄의 날에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貨水盆)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의 결산의 날에 ‘만을길’의 시간이 아닌 완전한 ‘울림’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철학과 심리(Enneagram : 9개의 심리현상)가 있기에 자아(自我)의 성숙기(成熟期)가 끝난 후에는 쉽게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기 쉽지 않다. 즉, 성인(成人)이 되면, 자신의 삶의 환경과 여전속에서 연륜(年輪)만큼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굳어진 자아가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가 다른을 인정하지 못하면 일종의 사회생활의 부적응자, 인격 장애자(Psychopath)가 되기 쉽다.

무지개(Rainbow)가 일곱 색깔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만 서로가 다르다고 밀어낸다고 하면 그 본연의 미(美)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과도 같다. 세상은 화합(Unity)과 조화(Harmony. Sync)를 통하여 소통(Communicate)하고 유지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려서부터의 유년시절에 특히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省察)하는 방법을 익히고 청년의 시절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인생관(人生觀)과 목표(目標)를 설정해야 하며, 장년의 시절에 부단(不斷)한 노력과 인내로써 아름다운 자아(自我)를 실현하고,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언제, 어느 날에,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올 노년과 인생의 환희의 시간들에서 인생의 맛집표를 찍을 날을 후회 없고 지혜롭게 맞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인생(人生 : 인간의 삶)의 날들은 자신의 일생(一生 : 하나님에 없는 생애)은 일생(日生 : 하루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은 일생(一生)이 이생(二生)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찰나(剎那)의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흐르는 물처럼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진리가 있기에, 즉 ‘하루하루의 삶이 자신의 평생의 인생이요 인생은 하루의 삶, 즉 일생. 日生’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마치 점(點)이 선(線)을 이루고, 선이 면(面)을 이루며 면이 공간(空間)을 이루는 것과 같다. 고로 하루를 충실히 ‘철학(哲學 : 자신의 지혜를 밝히는 학문)’으로 생각하고 심리학(心理. Psychology)’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우리를 주변에 산재한 모든 학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분야는 ‘인문학’의 한 분야이기에 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다.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은 자연과학(自然科學. Natural Science)의 상대적 개념으로 주로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 즉 삶과 죽음에 관한 의문이나 인간에 관한 사상, 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자연현상을 다루는 학문인데 반하여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의 영역으로 다룬다.

인문학의 범주는 언어, 언어학, 문학, 역사(Historia : Explore : 조사, 기록하다. 탐구하다), 철학, 심리학, 예술, 비평, 예술의 실천과 이론, 등등, 그리고 인간을 내용과 주제로 하는 학문의 분야이다. 그 분야가 너무나 방대하기에 독자들의 자신만의 연구를 부탁드린다. 그리하여 자신만의 인문학에 관한 사고와 사유의 결과물을 사상으로 정리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서울대공원 오소리 메달



이 사진은 내가 서울대공원에 오소리한 마리를 데려다주자 서울대공원에서 감사의 표시로 나에게 준 메달이다. 근래 집에서 이것저것 들추다 방바닥에 놓

하고 뭔가 떨어지길래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 오소리 관련 메달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젊은 시절 직장도 그만두고 몸도 좋지 않아서 면목동 산 밑으로 이사해서 어렵게 살 때인데 운동도 할겸해서 매일 뒷산에 오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산에 막 오르려 하는데 산 아래쪽 진입로 부근에서 오소리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었다. 오소리는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밤새 얼마나 밤비 등쳤는지 힘이 다 빠져 죽 늘어져 있었다. 겨우 옮을 벗겨내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라도 먹으라고 먹을 것을 줘도 먹지 않았다. 그 당시 오소리는 약재 용으로 1마리당 시가 약 5만원 정도 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약재상가에 가서 팔려다가 동물도 생명인데 자기 명대로 살다 죽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 길로 오소리를 서울대공원에 데려다주며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서울대공원에서 고맙다며 이 메달을 주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메달을 본 순간 당시 오소리에 대한 추억과 함께 그 시절 젊은 날의 내 모습도 아련히 떠오른다. 미수(米壽)가 지나고 구순(九旬)이 내일 모례인 지금! 그 때 내가 거의 죽을뻔한 동물을 살렸다고 생각하니 깊은 감회가 밀려오고, 그때 그 오소리는 자기 명대로 살았는지 궁금해진다.

권태강(전 겸교공파 회장) 대종희 고문



용비봉무 용이 날고 봉황은 춤을 춘다.  
勤堂 근당 權泰殷 權泰殷 謹書